기본연산

Seokjin Woo

R과 빅데이터에 대한 기본 소개

개요

- 데이터 사이언스는 실제 자료를 이해할 수 있고, 인사이트가 있는,
 그리고 지식도 전달하는 수단임
- 이번 코스는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Python과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R을 통해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배우는 것임
- 특히, 경제분야 모델을 세우고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내우게 될 것임

빅데이터: the new 'The Future'

- 데이터가 돈이 된다. 새로운 유전이다.
- 디지털 뉴딜
- 3V's: Volume, Variety, Veloc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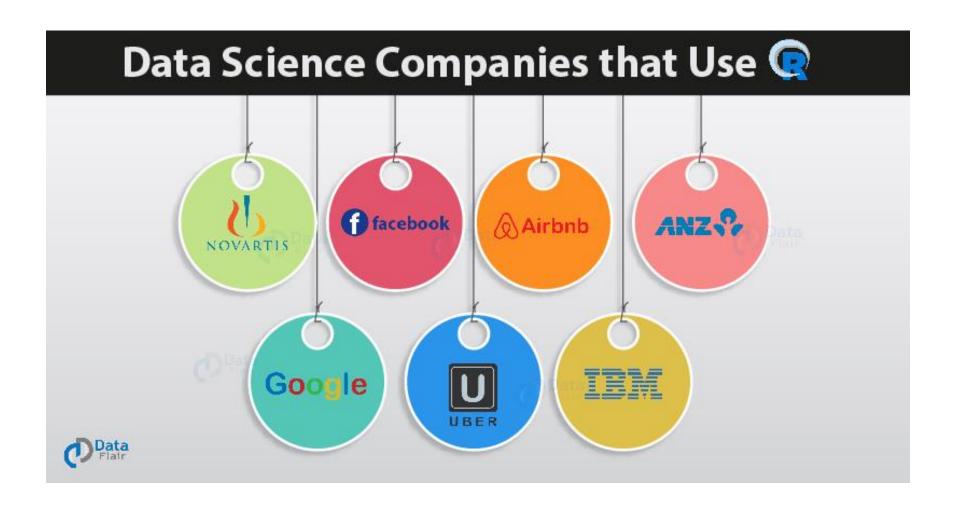
Why R

- developed by Ross Ihaka and Robert Gentleman
- 통계 및 시각화 부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
- 10,000 개 이상의 패키지(CRAN repository)
- 많은 통계, 계량경제학자가 사용
- 시각화 우수

R의 장점

- data wrangling (dplyr, purrr, readxl,...)
- 다양한 통계모형
- 시각화 우수(ggplot2, scatterplot3D)
- 머신러닝, 딥러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패키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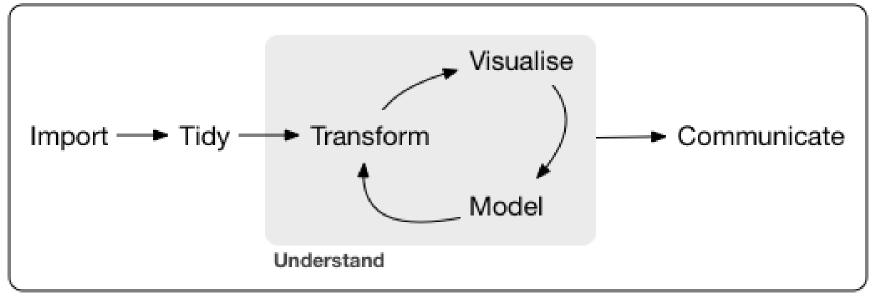
R을 사용하는 회사들



R에 대한 소개

- R은 컴퓨터 랭귀지, 자료의 조작, 통계, 시각화에 사용
- 기본 R에는 다양한 통계 및 그래픽 분석을 위한 툴들이 포함되어 있고, 사용자들이 개발한 패키지들을 추가시킬 수 있음
- C, C++, FORTRAN 같은 언어도 효율적으로 포함시켜 사용할 수 있음

기본적인 흐름



Program

R을 이용한 기본 연산

- R은 기본적으로 계산기 기능을 제공
- 4칙 연산을 기본으로 할 수 있고, 제곱, 세제곱 같은 연산도 할 수 있음
- 예컨대 덧셈은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다. 콘솔 창에 1+1을 치고 enter
 키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연산 결과를 얻을 수 있음

```
> 1+1
[1] 2
> 2+2
[1] 4
```

• 뺄셈도 덧셈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• 곱셈은 연산자 *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.

• 나눗셈은 /을 이용하여 연산할 수 있다.

```
> 4/2
[1] 2
```

거듭제곱은 숫자 6에 붙어 있는 ^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. 예를 들어 2의 3제곱근은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.

```
> 2^3
[1] 8
```

- 간단한 함수 연산도 할 수 있음
- 밑이 $10 \log_{10} 10$ 의 값은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.

```
 > log(10, base = 10)  [1] 1
```

• 밑이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로그가 계산된다.

```
> log(10)
[1] 2.302585
```

• 지수함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.

```
> exp(1)
[1] 2.718282
> exp(log(10))
[1] 10
```

- R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기본 단위는 벡터(vector)이다.
 - 나중에 소개할 함수들도 대부분 벡터 기반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.
- 벡터는 c()함수를 통해서 만들어진다.
 - 여기에서 c는 영어 "combine" 의 약자로 알려져 있다.
- 다음과 같이 벡터를 만들 수 있다.

```
> c(1, 2, 3, 4, 5) [1] 1 2 3 4 5
```

- 이렇게 만들어진 벡터를 특정 변수에 저장할 수 있다.
- 저장하는 방법은 " <-" 혹은 "=" 을 사용하면 된다.
 - <- 은 오른쪽 값을 왼쪽 변수에 넣으라고 알려주는 기호이다.
- 앞에서 만든 벡터를 변수 a에 아래와 같이 담을 수 있다.

```
> a <- c(1, 2, 3, 4, 5)
```

• 이렇게 만들어진 벡터는 print() 를 이용해서 살펴볼 수 있다.

```
> print(a)
[1] 1 2 3 4 5
```

• 벡터의 길이는 length()를 이용해서 살펴볼 수 있다.

```
> length(a) [1] 5
```

- 이렇게 생성된 벡터 a를 이용하여 스칼라 변수처럼 다양한 연산을 할 수 있다.
- 아래 연산은 아래의 벡터값에 2를 곱하고 3을 더하는 연산으로서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```
> 2*a + 3
[1] 5 7 9 11 13
```

- 벡터에 함수를 적용할 수도 있다.
- 예컨대, log(a) 를 하면 벡터값마다 자연로그를 취한 값들이 산출된다.

```
> a
[1] 1 2 3 4 5
> log(a)
[1] 0.0000000 0.6931472 1.0986123 1.3862944
1.6094379
```

부분벡터

- 전체 벡터가 아니라 벡터의 일부분만 필요한 경우가 있다.
- 이런 경우 벡터의 일부분인 부분벡터를 추출할 필요가 있다.
- 벡터 a의 1, 3 번째 값을 다음과 같이 추출할 수 있음

```
> a
[1] 1 2 3 4 5
> a[c(1, 3)]
[1] 1 3
```

부분벡터 2

- 해당 index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면, 해당 값만 제외하고 추출할 수 있다.
- 예를 들어, 인덱스 a[-c(1,3)]는 a 벡터의 값 중 1, 3 번째 값만 제외하고 추출하라는 뜻이다.

```
> a[-c(1,3)]
[1] 2 4 5
```

패턴이 일정한 벡터

- 계량분석을 하다 보면 특정한 패턴을 가진 벡터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.
- 이런 경우 rep(), seq() 등을 이용하면 쉽게 반복되는 패턴을 가진 벡터를 생성할 수 있다.
- 다음과 같이 1로만 구성된 일벡터를 만들 수 있다.

```
> ones <- rep(1, 10)
> print(ones)
[1] 1 1 1 1 1 1 1 1 1 1
```

패턴이 일정한 벡터 2

- seq() 함수를 이용하면 수열로 구성된 벡터를 생성할 수 있다.
- 1부터 100까지 5씩 증가하는 수열인, 1, 6, 11,..., 91, 96 으로 구성된 벡터가 만들어진다.

패턴이 일정한 벡터 3

• 알파벳의 열

```
> letters[1:3]
[1] "a" "b" "c"
```

• 시계열의 경우에는 연도 변수를 만들 필요가 있다.

```
> year <- 2000:2018
> print(year)
 [1]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
2009 2010 2011 2012 2013 2014
 [16] 2015 2016 2017 2018
```

• 벡터를 이어 붙일 수 있다.

```
> c(ones, b)
[1] 1 1 1 1 1 1 1 1 1 1 6 11 16 21
26 31 36 41 46 51 56 61 66 71
```

행렬(MATRIX)

- 행렬은 벡터의 모음이라고 보면 된다.
- 1부터 12까지의 수열 벡터를 생성한 후 nrow = 4를 지정하면 4X3 행 렬을 아래와 같이 만들 수 있다.

• 동일한 수열에 nrow = 3 으로 바꾸면 3X4 행렬을 생성할 수 있다.

```
> B <- matrix(1:12, nrow = 3)
> print(B)
    [,1] [,2] [,3] [,4]
[1,] 1 4 7 10
[2,] 2 5 8 11
[3,] 3 6 9 12
> Bp <- matrix(1:12, nrow = 3, byrow = TRUE)
> print(Bp)
    [,1] [,2] [,3] [,4]
[1,] 1 2 3 4
[2,] 5 6 7 8
[3,] 9 10 11 12
```

• 행렬 A의 차원은 다음과 같다

```
> dim(A) [1] 4 3
```

• 행의 갯수를 알고 싶으면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.

```
> nrow(A) [1] 4
```

• 열의 갯수를 알고 싶으면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.

```
> ncol(A) [1] 3
```

- 행렬 A의 인자 a_{ij} 는 A[i,j]로 추출할 수 있다.
- 전체 행은 A[i,], 전체 열은 A[, j]로 표시할 수 있다.

하부행렬

• 행렬 A는 아래와 같다.

하부행렬 2

 위 행렬 A에서 1,2 행과, 1,3 열을 추출하여 하부 행렬 A1을 아래와 같이 생성하자.

```
> A.1 <- A[c(1,2),c(1,3)]
> print(A.1)
      [,1] [,2]
[1,] 1 9
[2,] 2 10
```

• A1은 첫 번째와 세 번째 행 및 열을 추출해서 만든 정방행렬(square matrix)이다.

하부행렬 3

- 행렬식(determinant)을 계산해보자.
- 함수 det()를 이용하면 행렬식을 계산할 수 있다.

```
> det(A.1)
[1] -8
```

역행렬

- 역행렬은 함수 solve()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다.
- A.1의 역행렬 A.i은 다음과 같다.

```
> A.i <- solve(A.1)
> print(A.i)
        [,1]        [,2]
[1,] -1.25     1.125
[2,]      0.25 -0.125
```

역행렬 2

• 이렇게 구해진 역행렬이 제대로 구해졌는지 확인하려면 원래 행렬
A.1과 곱하면 단위행렬(identity matrix)이 되는지 확인해보면 된다.

• 행렬의 곱은 "%*%" 이다.

```
> A.1 %*% A.i
[,1] [,2]
[1,] 1 0
[2,] 0 1
```

• 위 행렬 곱은 순서를 바꿔도 결과는 동일하다.

```
> A.i %*% A.1
[,1] [,2]
[1,] 1 0
[2,] 0 1
```

패턴이 있는 행렬

- 경제 분석을 위한 계량분석에서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행렬이 자주 사용된다.
- R에서는 이러한 패턴을 가진 행렬을 비교적 쉽게 생성할 수 있다.
- 대각선에 위치한 값이 1이고, 대각선에 위치하지 않는 값은 0인 대 각 행렬은 함수 diag()를 이용하면 생성할 수 있다.

패턴이 있는 행렬

패턴이 있는 행렬 2

- 좀 더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대각행렬을 생성할 수 있다.
- 먼저, 다음과 같이 벡터를 만들어보자. (1,2)값을 갖는 벡터를 3번 연속해서 생성된다.

```
> rep(c(1, 2), 3)
[1] 1 2 1 2 1 2
```

• 이번에는 반복되는 값을 아래와 같이 벡터로 지정해보자.

```
> rep(c(1, 2), c(3, 3))
[1] 1 1 1 2 2 2
```

패턴이 있는 행렬 2

 위의 값을 대각선 값으로 갖는 대각행렬은 다음과 같이 생성할 수 있다.

패턴이 있는 행렬 3

 위의 값을 대각선 값으로 갖는 대각행렬은 다음과 같이 생성할 수 있다.

```
> diag(rep(c(1, 2), c(3, 3)))
      [,1] [,2] [,3] [,4] [,5] [,6]
[1,] 1 0 0 0 0 0 0
[2,] 0 1 0 0 0 0 0
[3,] 0 0 1 0 0 0 0
[4,] 0 0 0 2 0
[5,] 0 0 0 0 0 2 0
[6,] 0 0 0 0 0 2
```

패턴이 있는 행렬 3

- diag()의 경우, 행렬이 들어가면 해당 행렬의 대각행렬의 값을 추출할 수 있다.
- 예컨대 행렬 A.1은 아래와 같은 행렬이다.

```
> A.1

[,1] [,2]

[1,] 1 9

[2,] 2 10
```

• A.1의 대각선에 위취한 값들은 1과 10임을 확인할 수 있다.

```
> diag(A.1)
[1] 1 10
```

하삼각행렬 상삼각행렬

하삼각행렬(lower triangular matrix), 상삼각행렬(upper triangular matrix)도 구할 수 있다.

하삼각행렬

- 하삼각행렬은 반대로 upper.tri() 함수를 이용하면 된다.
- upper.tri()는 상삼각에 속하는 경우를 지칭해주는 논리값(TRUE 혹은 FALSE)을 준다.
- 따라서 상삼각에 속하는 값을 0으로 바꾸면 하삼각행렬을 만들 수 있다.

```
> upper.tri(A.1)
       [,1] [,2]
[1,] FALSE TRUE
[2,] FALSE FALSE
```

하삼각행렬 2

• 위 값에 속하는 경우는 0으로 바꾸어주면, 하상각 행렬이 만들어진다.

상삼각행렬

• 유사한 방법으로 상감각 행렬도 만들 수 있다.

rbind()와 cbind()

- 한편 여러 개의 행렬 또는 벡터를 하나의 행렬로 묶을 수 있다.
- 보통 rbind(), cbind() 함수를 사용하게 된다.
- rbind()는 행으로 묶고, cbind()는 열로 묶게 된다.

rbind()와 cbind() 2

• 행으로 묶을 때는 rbind()를 이용하면 된다.

R에서 프로그래밍 하기

벡터의 모드(mode)

- R에서 가장 단순한 자료 형태는 앞에서 소개한 벡터이다.
-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벡터안에 포함된 값들은 모두 동일한 모드(mode)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.
- 모드는 크게 보면, 숫자(numeric), 문자(character), 논리(logical)로 구 분해볼 수 있다.
- 예컨대 벡터 x가 다음의 값을 가지는 벡터라고 해보자.

```
> x <- c(1:5)
> print(x)
[1] 1 2 3 4 5
```

numeric

- 벡터 x는 기본적으로 1,2,...,5의 숫자를 갖고 있는 숫자벡터이다.
- x가 어떤 모드인지는 mode() 함수를 통해서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.

```
> mode(x)
[1] "numeric"
```

• 위에 따르면 x는 numeric이다.

character

- character 벡터에는 문자가 들어간다.
- a,b,c,d,e 의 값을 갖고 있는 벡터이다.
- 문자 벡터의 값은 쌍따옴표 "" 에 들어가 있다.

```
> y <- c("a", "b", "c", "d", "e")
> print(y)
[1] "a" "b" "c" "d" "e"
```

- 모드는 mode() 함수를 통해 알 수 있다.
- 벡터 y는 character 임을 확인할 수 있다.

```
> mode(y)
[1] "character"
```

character 2

- 이런 문자 벡터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. 자료 그 자체로
 사용할 수도 있고
- 벡터나 행렬의 레이블로서도 사용이 가능하다.
- 예컨대, 다음과 같이 names()함수를 이용하여 위에서 생성한 벡터 x의 이름으로도 사용가능하다.

```
> names(x) <- y
> print(x)
```

abcde

1 2 3 4 5

logical

- 다음으로는 논리(logical) 벡터가 있다.
 - 논리 벡터의 경우 벡터의 특정값이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지를 나타 내주는 벡터이다.
 - 벡터의 값들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TRUE, 만족시키지 못하면 FALSE 의 값을 갖는다.
- 앞에서 생성했던 벡터 x 의 경우 x > 3의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이용하여 논리 벡터를 만들어보자.

```
> z <- x>3
> print(z)
    a    b    c    d    e
FALSE FALSE TRUE TRUE
```

logical 2

• z의 모드 값은 mode() 함수를 이용해 확인해보면 그 값은 logical임을 알 수 있다.

```
> mode(z)
[1] "logical"
```

LIST

리스트(list)

- list는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도록 기존의 벡터를 확장한 또 하나의 벡터라고 이해할 수 있다.
- 기존 벡터는 단순히 값만 가지고 있다면, list에는 그 외의 정보들도 포함되어 있다.
- list 는 다양한 모드의 벡터, 행렬, 데이터 프레임(data frame), 함수, 혹은 list 자체를 값으로 가질 수 있다.
- R에서 다루어지는 많은 자료들은 list의 형태로 저장되고 있다.

-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list를 살펴보자.
 - 표준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표본을 생각해보자.
 - 벡터를 이용해 표본을 생성해보자.
 -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난수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rnorm() 함수를 사용하면 된다.
 - set.seed()는 난수 생성 전에 시드를 정해주는 함수이다.
- rnorm(10)은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10개의 난수를 추출해준다.
- 이렇게 추출된 난수를 list.normal 이라는 벡터에 저장을 한다.
- 그리고 print() 를 이용하여 어떤 난수가 생성되었는지 확인을 한다.

```
> set.seed(123456)
> list.normal <- rnorm(10)
> print(list.normal)

[1]  0.83373317 -0.27604777 -0.35500184
0.08748742  2.25225573  0.83446013

[7]  1.31241551  2.50264541  1.16823174 -
0.42616558
```

- 벡터로 생성된 list.normal에는 위에서 생성된 값만 담기게 된다.
- 값 외에도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경우가 있다.
 - 예컨대, 난수를 어떤 분포에서 이 표본을 생성했는지, 분포의 모수는 어떤 것들을 사용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.
 -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이 list()를 이용하면 된다.

- 위 list.normal은 크게 보면 sample, dist, param 으로 구성되어 있다.
 - sample은 10개의 난수를 담고 있는 numeric이다.
 - dist는 어떤 분포에서 난수가 생성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character 이다.
 - 구체적으로는 "normal"이라고 기록을 해 놓아 나중에 난수가 정규분 포에서 추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.
 - param은 다시 list 이다. 평균은 0, 표준편차는 1이라고 기록해 두었다.
- list.normal은 다음과 같다.

```
> print(list.normal)
$sample
 [1] -0.99612975 -1.11394990 -0.05573154
1.17443240 1.05321861 0.05760597
 [7] -0.73504289 0.93052842 1.66821097
0.55968789
$dist
[1] "normal"
$param
$param$mean
[1] 0
$param$sd
[1] 1
```

- 위 list의 각 요소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"\$"를 이용하면 된다.
- 예컨대, sample은 다음과 같이 추출할 수 있다.

```
> list.normal$sample
  [1] -0.99612975 -1.11394990 -0.05573154
1.17443240  1.05321861  0.05760597
  [7] -0.73504289  0.93052842  1.66821097
0.55968789
```

• dist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추출할 수 있다.

```
> list.normal$dist
[1] "normal"
```

• 한 걸음 더 나아가서 param 리스트 내에 mean 만 따로 추출할 수 있다.

• "\$"를 추가적으로 더해주면 된다.

```
> list.normal$param$mean
[1] 0
```

• sd도 유사하게 추출할 수 있다.

```
> list.normal$param$sd
[1] 1
```

- 논리적 비교는 자료 분석에서 매우 중요하다.
 - 예컨대, 성별, 학력, 경력 별로 임금을 계산할 때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료만을 추출할 필요가 있다.
 - 기본적으로 <, <=, >, >=, ==, != 을 사용할 수 있다.
 - 두 개의 조건이 동시에 만족해야 할 때는 "&"를, 하나의 조건만 만족해야 할 때에는 "|"를 사용하면 된다.
 - 조건의 반대는 "!"를 사용할 수 있다.

다음과 같은 벡터를 생성해보자. x는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10개의 보수로 구성된 벡터이다.

```
> set.seed(123456)
> x <- c(rnorm(10))
> print(x)
[1]  0.83373317 -0.27604777 -0.35500184
0.08748742  2.25225573  0.83446013
[7]  1.31241551  2.50264541  1.16823174 -
0.42616558
```

- 다음과 같은 0 < x < 1.0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
- 그러면 4번째와 9 번째 값이 조건에 해당하여 TRUE 값을 갖고, 나머지 값은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FALSE 값을 갖게 된다.
 - > x > 0 & x < 1.0
 - [1] TRUE FALSE FALSE TRUE FALSE TRUE FALSE FALSE

• 이런 작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함수는 which() 함수이다

• 앞의 분석과 동일하게 1, 4, 6 번째 벡터값이 0 < x < 1.0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```
> which (x > 0 & x < 1.0) [1] 1 4 6
```

- R에서는 변수 혹은 벡터의 타입을 강제로 전환해줄 수 있다.
- 그 전에 벡터가 어떤 타입인지 확인해보자. is.foo() 의 형태의 함수 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.
- 예를 들어, is.numeric(x) 를 통해서 numeric 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
 있다.

• 아래 x는 numeric 인지 물어보았을 때 답은 TRUE 이다.

```
> is.numeric(x)
[1] TRUE
```

• 반면, character인지 확인해보자. 답은 FALSE 이다.

```
> is.character(x)
[1] FALSE
```

- 벡터 x의 경우 numeric 이지만 character 로 강제로 전환할 수 있다.
 - as.foo() 형태의 함수를 이용하면 된다.
- 예를 들면, as.character()를 사용하면 속성을 character로 전환할 수
 있다.

```
> x.c <- as.character(x)
> print(x.c)
  [1] "0.833733170755138" "-0.276047773214867" "-
0.355001838033406"
  [4] "0.0874874238042033" "2.25225573054322"
"0.834460129133672"
  [7] "1.31241550858861" "2.50264540789068"
"1.16823174338441"
[10] "-0.426165577414356"
```

- is.character()를 이용해서 확인해보자.
- 새로 만든 x.c 는 character 타입임을 알 수 있다.

```
> is.character(x.c)
```

[1] TRUE

- 벡터에 서로 다른 두 타입의 값이 포함된 경우에는 하나의 타입으로 강제 배정된다.
- 예컨대, 벡터 값이 1과 "a"의 경우 모두 character로 전환된다.

```
> c(1,"a")
[1] "1" "a"
```

- 논리값과 숫자가 묶였을 때, numeric으로 전환된다.
 - 이 때 TRUE의 경우는 1의 값을 갖게 된다.

```
> c(1>0, 2)
[1] 1 2
```

• 한편, 논리 변수와 문가 엮였을 때에는 character로 강제로 배정된다.

```
> c(1<0, "a")
[1] "FALSE" "a"
```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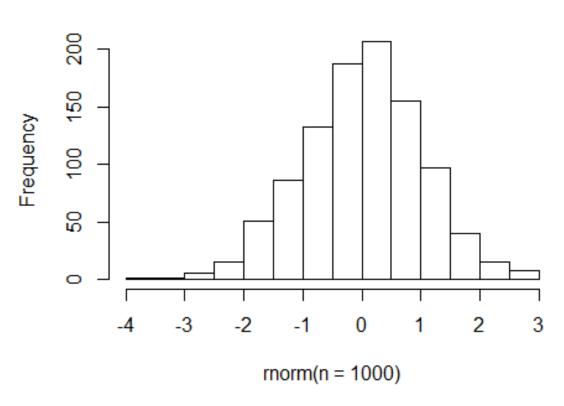
난수의 생성

- R에서의 난수 생성은 난수생성기(random number generator)를 이용하여 생성한다.
- 다양한 분포로부터 난수를 뽑을 수 있도록 다양한 함수를 제공하고 있다.
- 난수 생성할 때 seed를 정하면 동일한 난수가 생성된다. 만약 seed 를 정하지 않으면 난수 생성할 때마다 서로 다른 난수가 생성된다.
- 난수 생성 이전에 set.seed() 함수를 이용하여 seed를 고정하자.
 - > set.seed(123456)

정규분포에서 추출

- 10개의 난수를 표준정규분포로부터 추출하기 위해서 rnorm() 함수 를 이용해보자.
- 표준정규분포는 평균 0, 표준편차 1을 갖는 분포이다.
 - > hist(rnorm(n = 1000))

Histogram of rnorm(n = 100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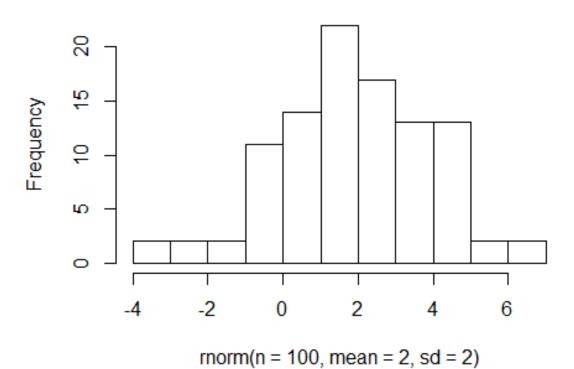


정규분포에서 추출 2

- 평균이 2, 표준편차 2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난수 10개를 생성해보자.
- rnorm() 함수에 mean = 2, sd = 2 라는 모수를 정해주면 된다.

```
> hist(rnorm(n = 100, mean = 2, sd = 2))
```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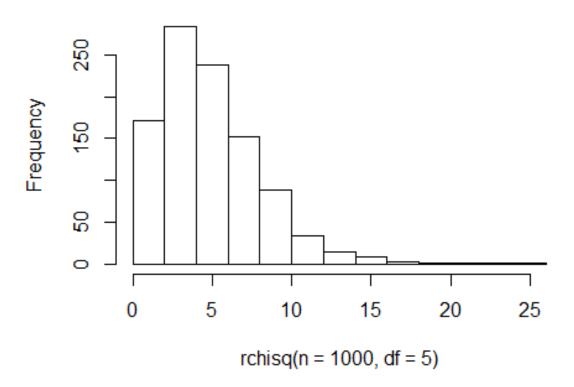
Histogram of rnorm(n = 100, mean = 2, sd = 2)



카이제곱

- $\chi^2(5)$ 의 분포에서도 난수를 추출할 수 있다. rchisq() 함수를 사용하면 된다.
 - 단 자유도 df 를 정해주어야 한다.
 - 여기에서는 df = 5 라고 정하였다.
 - > hist(rchisq(n = 1000, df = 5))

Histogram of rchisq(n = 1000, df = 5)



- 주어진 자료에서 표집을 할 수도 있다.
- 예컨대 다음과 같은 표본이 있다고 해보자. 표본 s는 1부터 10까지 의 정수이다.

```
> s <- c(1:10)
> print(s)
[1] 1 2 3 4 5 6 7 8 9 10
```

- sample() 함수를 이용하면 표집을 할 수 있다.
- 모집단을 s 로 하고 5개를 표집하자. size = 5를 추가하면 된다.

```
> set.seed(123456)
> sample(s, size = 5)
[1] 8 7 4 3 9
```

- 여기에 이미 추출된 숫자를 복원하여 추출할 것인지, 아니면 비복
 원 추출을 할 지는 replace를 이용하여 정할 수 있다.
 - replace = TRUE 인 경우 복원 추출을 하게 된다. 아래 추출된 표본 중에 8이 2번 반복하여 추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.

- 각 숫자들이 추출될 수 있는 확률도 지정해줄 수 있다. 빨간색 red 와 파란색 blue 중에서 5번을 복원 추출로 추출하되,
- red가 나올 가능성은 0.7, blue가 나올 가능성은 0.3으로 지정하였다

.

IF 와 FOR

if 구문과 for 루프

- R도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마찬가지로 if/else 구문과 for 루프를 사용할 수 있다.
- 조건문을 걸거나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할 때 if/for 구문은 매우 유용하다.

• if 구문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주어진다.

```
> if (cond) {
+ expr1
+ } else {
+ expr2
+ }
```

- 위 구문의 경우 cond에 해당하는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expr1를 실행한다.
- 만약 cond가 만족되지 않으면 expr2를 실행하게 된다.

if 2

-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서 if 구문을 살펴보자.
- 먼저,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20개를 담고 있는 확률벡 터 x.r 을 다음과 같이 생성하자.

```
> set.seed(1234567)
> x.r <- rnorm(n = 20)
> head(x.r, n = 3)
[1] 0.1567038 1.3738112 0.7306702
```

if 3

• 여기에 50%의 확률로 x.r의 합을 계산하거나 다른 50%의 확률로 평 균을 계산해보자.

```
> set.seed(1)
> if (rnorm(1) > 0) {
+   print("The sum is ")
+   sum(x.r)
+ } else {
+   print("The mean is ")
+   mean(x.r)
+ }
[1] "The mean is "
[1] -0.01962018
```

- for 루프는 반목적인 계산을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.
- 아래의 예를 통해서 for 루프를 사용해보자.
 - 여기에서 year는 순차적으로 2010, 2011 등의 값을 가지게 된다.
 - 그리고 해당 값을 가지고 루프 안으로 들어가서 해당 값을 가지고 명 령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.

```
> for (year in c(2010:2015)) {
+    print(paste("The year is", year))
+ }
[1] "The year is 2010"
[1] "The year is 2011"
[1] "The year is 2012"
[1] "The year is 2013"
[1] "The year is 2014"
[1] "The year is 2015"
```

- 다음 예는 for 루프와 if 구문을 섞은 것이다.
 - i는 1에서 10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루프 안으로 들어간다.
 - 이렇게 들어간 i를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있으면 다음 루프로 가고
 - 나머지가 없으면 그 값을 print() 하게 된다.
 - 즉, 1에서 10 사이의 짝수를 프린트 하게 된다.

```
> for (i in 1:10) {
+    if (i %% 2) {
+        next
+    }
+    print(i)
+ }
[1] 2
[1] 4
[1] 6
[1] 8
[1] 10
```

• 한편, 홀수는 위의 for 루프 안에서 if 구문에 반대를 나타내는 "!"를 추가해주면 된다.

```
> for (i in 1:10) {
+    if (!i %% 2) {
+        next
+    }
+     print(i)
+  }
[1] 1
[1] 3
[1] 5
[1] 7
[1] 9
```

- 다만, R에서 루프는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R에서는 lapply 혹은 sapply와 같은 벡터화된 함수들이 있다.
- 될 수 있으면 for 루프 보다는 apply류의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속도 면에서 좋다.

- iris 자료를 이용하여 numeric 성질을 가진 열만 추출하는 for-loop을 짜보자.
- 먼저, iris 자료를 읽어들이자.

```
> data("iris")
```

- iris의 열의 갯수 만큼 for 루프를 돌린다.
 - iris 의 각 열의 타입이 numeric인 경우 빈 벡터인 iris_num에
 - 해당 열을 cbind()를 이용하여 옆으로 붙여 나간다.
 - 이렇게 해서 완성된 행렬은 data.fram()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선언해주자.
 - 그러면 iris num은 numeric 컬럼들로만 구성된 데이터 프레임이 된다.

```
> iris_num <- NULL
> for( i in 1:ncol(iris)) {
+    if(is.numeric(iris[, i])) {
+       iris_num <- cbind(iris_num, iris[, i])
+    }
+ }
> iris num <- data.frame(iris num)</pre>
```

```
> head(iris_num, n= 3)
```

X1 X2 X3 X4

- 1 5.1 3.5 1.4 0.2
- 2 4.9 3.0 1.4 0.2
- 3 4.7 3.2 1.3 0.2

- 이와 같이 긴 for 루프는 다음과 같은 한 줄의 sapply 함수를 이용하여 다시 쓸 수 있다.
- sapply(iris, is.numeric)은 iris 의 각 열마다, 각 열이 numeric 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, TRUE 인 경우인 열만 추출하여 iris_num 에 저장하는 것이다.

```
> iris_num <- iris[, sapply(iris, is.numeric)]</pre>
```

> head(iris_num)

Sepal.Length Sepal.Width Petal.Length Petal.Width

| retar. Width | | | |
|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
| 1 | 5.1 | 3.5 | 1.4 |
| 0.2 | | | |
| 2 | 4.9 | 3.0 | 1.4 |
| 0.2 | | | |
| 3 | 4.7 | 3.2 | 1.3 |
| 0.2 | | | |
| 4 | 4.6 | 3.1 | 1.5 |
| 0.2 | | | |

0.2

5.0

6 5.4 3.9 1.7

3.6

1.4

0.4

5

- 함수 function을 필요에 따라 만들어두면 프로그래밍 할 때 매우 편 리하다.
- 반복적인 작업은 모두 함수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좋다.

- 기본적으로 R의 함수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.
- 크게 보면 3개의 파트로 나누어진다.
 - 함수의 이름 function.name
 - 함수의 인자 arguments
 - 그리고 함수의 내용인 body로 구성된다.
 - body에는 함수의 산출물로서 무엇을 내보낼지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.

function.name <- function(arguments){</pre>

```
computations on the arguments body return(output)
```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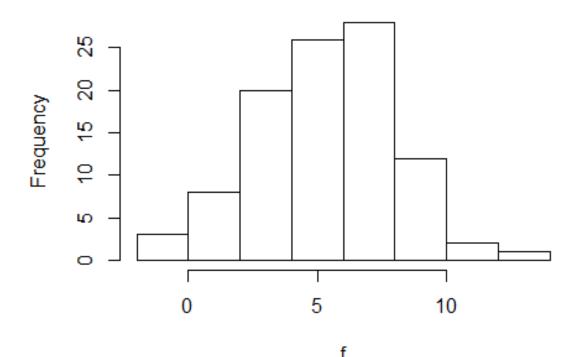
- 다음과 같은 예를 이용해 간단한 함수를 만들어보자.
- 함수 이름은 normalize 라고 하자.
 - x라는 함수의 인자를 받는다.
 - x에서 x의 평균 mean(x)을 빼서 numerator 라는 변수에 저장한다.
 - x의 표준편차 sd(x)를 이용해서 계산하고 denominator 라는 변수에 저 장한다.
 - 위에서 계산한 numerator를 denominator로 나누면 정규화가 되고, 이 값을 normalize에 저장한다. return()을 이용하여 함수의 값으로 normalize를 보고한다.

• 위에서 설명한대로 함수를 작성하면 아래와 같다.

```
> normalize <- function(x) {</pre>
   # step 1: create the numerator
+
   numerator <- x-mean(x)
+
+ # step 2: create the denominator
   denominator <- sd(x)
+ # step 3: divide nominator by denominator
   normalize <- numerator/denominator</pre>
+
+ # return the value
+ return(normalize)
+ }
```

• 이렇게 정의된 함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평균 5, 표준편차 3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벡터 f를 생성하자.

Histogram of f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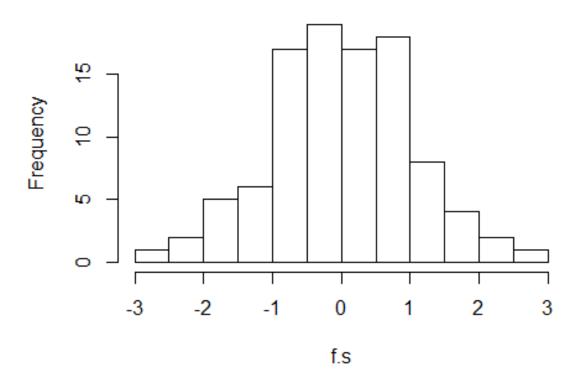


• 이러한 f를 위에서 정의한 normalize() 함수를 적용해보자.

```
> f.s <- normalize(f)</pre>
```

> hist(f.s)

Histogram of f.s



• normalize() 함수를 적용한 결과인 f.s 가 표준화되었는지를 확인하 기 위해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보자.

```
> mean(f.s)
[1] -8.334696e-17
```

• 벡터 f.s 의 표준편차는 1로 정확히 표준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.

```
> sd(f.s) [1] 1
```

자료 관리하기(DATA MANAGEMENT)

개요

- R에서 통계 패키지에서 자료라고 부르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데이터 프레임(data frame)이다.
- 데이터 프레임은 같은 길이의 벡터의 모임 혹은 factor 의 모임이다.
 -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사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.
 - 데이터 프레임의 행은 관측치, 열은 변수를 의미한다.

개요 2

- 데이터 프레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.
- 1. 데이터 프레임은 행과 열의 집합이다.
- 2. 각 열은 같은 길이를 가지면 자료의 타입도 동일하다.
- 3. 각 행은 같은 길이를 가지지만 자료의 타입은 다를 수도 있다.
- 4. 데이터 프레임은 matrix와 list의 특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.
- 5.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싱은 [] 를 사용한다.

- 데이터 프레임은 다음과 같이 생성할 수 있다.
- data.frame() 함수를 이용하면 된다.
 - 기본적으로 벡터들을 모아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지정하면 된다.

```
> rm(list = ls())
> x <- data.frame(
+    x1 = 1:10,
+    x2 = 11:20,
+    x3 = 21:30
+ )</pre>
```

• 그러면 class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갖게 된다.

```
> class(x)
[1] "data.frame"
```

• 모드는 list 이다.

```
> mode(x)
[1] "list"
```

- 다른 예를 들어보자.
- R에서 자주 사용되는 자료를 하나 불러들이자.
- mtcars 라는 자료로서 아래와 같이 불러들일 수 있다. mtcars는 자동차에 대한 자료로서
- 이미 data.frame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.

```
> rm(list = ls())
> data("mtcars")
> str(mtcars)
'data.frame': 32 obs. of 11 variables:
 $ mpg : num 21 21 22.8 21.4 18.7 18.1 14.3 24.4
22.8 19.2 ...
 $ cyl : num 6 6 4 6 8 6 8 4 4 6 ...
 $ disp: num 160 160 108 258 360 ...
 $ hp : num 110 110 93 110 175 105 245 62 95
123 ...
 $ drat: num 3.9 3.9 3.85 3.08 3.15 2.76 3.21
3.69 3.92 3.92 ...
 $ wt : num 2.62 2.88 2.32 3.21 3.44 ...
 $ qsec: num 16.5 17 18.6 19.4 17 ...
 $ vs : num
             0 0 1 1 0 1 0 1 1 1 ...
 $ am
      : num
             1 1 1 0 0 0 0 0 0 0 ...
 $ gear: num
              4 4 4 3 3 3 3 4 4 4 ...
```

- 다음과 같이 자료 관리를 할 수 있다.
- 예컨대 1-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추출할 수 있다.

• mtacrs의 1-3행과 1, 4열을 아래와 같이 추출할 수 있다.

- 논리 조건문을 걸어서 mpg가 30 이상인 관측치를 추출할 수 있다.
- []안에 mpg>30을 넣어주면 된다.

```
> # Find the rows where the MPG column is greater than 30
```

```
> a <- mtcars[mtcars$mpg > 30, 1:3]
```

> head(a, n = 3)

```
mpg cyl disp
Fiat 128 32.4 4 78.7
```

Honda Civic 30.4 4 75.7

Toyota Corolla 33.9 4 71.1

mpg가 30보다 크고 cyl가 4기통인 자동차의 1-3열은 아래와 같이
 추출할 수 있다.

• 다음과 같이 tapply()를 적용하여 cyl별 mpg의 평균을 계산할 수도 있다.

DATA WRANGLING

- 데이터 프레임을 다룰 때 이전에는 R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함수들을 주로 사용하였지만,
- 요즘에는 dplyr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들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.
- 따라서 예전 명령어들을 익히는 것보다는 요즘에 쓰는 dplyr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명령어를 익히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.

- 이를 위해서 dplyr 패키지를 library() 함수를 이용하여 장착하자.
 - > library(dplyr)

- 많이 쓰는 함수들은 다음과 같다.
 - select(): 변수 선택
 - filter(): 관측치 필터링
 - mutate(): 새로운 변수 생성
 - arrange(): 자료의 순서 정리
 - group_by(): 범주별로 정리
 - summarise(): 요약통계량 작성
 - join(): 서로 다른 데이터 프레임의 병합

- dplyr 패키지를 이용한 자료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른바 파이프(pipe)라고 불리는 "%>%"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다.
- 파이프 %>% 는 기본적으로 앞 함수에서 구한 결과를 뒤의 함수로 넘겨주는 역할을 한다.
- 그래서 여러 개의 함수를 단계별로 이용해야 하는 경우 논리적 흐름에 따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명령어의 조합을 구성할 수 있기 된다.

- 다음과 같은 filter() 함수를 생각해보자.
- 아래 filter() 함수의 경우 data를 이용해서, 특정 변수 variable 이 특정된 numeric value 를 갖는 관측치만을 골라내는 역할을 한다.
 - > filter(data, variable == numeric_value)

- 파이프 %>% 를 이용하는 경우, 그 순서가 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.
- 1. data 라는 자료를 불러내고
- 2. 자료 중 variable이 특정 numeric_value를 갖는 관측치를 골라낸다.
 - > data %>%
 - + filter(variable == numeric value)

• 다음과 같이 dplyr 패키지를 장착하자. 혹시 dplyr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intall.packages("dplyr") 을 통해서 dplyr 패키지를 설치하자.

```
> if (!require(dplyr)) install.packages('dplyr')
> rm(list = ls())
> library(dplyr)
```

• 그리고 다음과 같이 분석에 사용할 자료를 불러들이자.

```
> lfp <- read.csv("laborforce.csv",
+ header = TRUE)</pre>
```

- 어떤 자료인지는 str()함수를 이용하면 알 수 있다.
- 이 자료는 지난 18년 동안(2000-2017년)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규모
 에 관한 자료이다(kosis.kr). 단위는 천명이다.
- 포함된 변수는 지역 region, 연도 year, 총경제활동인구 total, 남성 경제활동인구 male, 여성 경제활동인구 female이다.

select

- select() 함수는 데이터 프레임 중 필요한 변수만을 골라내는 역할을 하다.
- 예를 들어 Ifp 변수 중 total을 제외한 지역 region, 연도 year, 남성 규모 male, 여성 규모 female 변수를 골라내자.

select 2

```
> lfp.sub <- lfp %>%
+ select(region, year, male, female)
> head(lfp.sub)
    region year male female
1 서울특별시 2000 2909 2010
2 부산광역시 2000 1028 730
3 대구광역시 2000 667 481
4 인천광역시 2000 716 448
5 광주광역시 2000 345 247
6 대전광역시 2000 360 249
```

select 3

• 포함될 변수명을 써주는 대신 제외할 변수명을 써주면 된다.

```
> lfp.sub <- lfp %>%
+ select(-total)
> head(lfp.sub)
    region year male female
1 서울특별시 2000 2909 2010
2 부산광역시 2000 1028 730
3 대구광역시 2000 667 481
4 인천광역시 2000 716 448
5 광주광역시 2000 345 247
6 대전광역시 2000 360 249
```

filter

- filter() 함수는 특정 변수가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관측치를 골라 내는 함수이다.
- 예를 들면, region이 서울특별시인 관측치만 골라내보자.

```
> lfp.seoul <- lfp %>%
+ filter(region == "서울특별시")
```

filter 2

• filter() 함수 안에서는 아래와 같은 논리 연산자들을 사용할 수 있다

< Less than

!= Not equal to > Greater than

%in% Group membership == Equal to

is.na is NA <= Less than or equal to

!is.na is not NA >= Greater than or equal to

&,|,! Boolean operators

filter 3

• filter() 함수의 조건은 여러 개가 될 수 있다. 예컨대 서울특별시 자료중 2010년 이후만 따로 골라낼 수 있다.

```
> lfp.seoul.2010 <- lfp %>%
+ filter(region == "서울특별시" & year > 2009)
```

```
> head(lfp.seoul.2010, n = 5)
region year total male female
1 서울특별시 2010 5308 3029 2280
2 서울특별시 2011 5395 3070 2325
3 서울특별시 2012 5371 3035 2336
4 서울특별시 2013 5355 3016 2339
5 서울특별시 2014 5449 3057 2392
```

group_by

- group_by() 함수는 범주형 변수의 값별로 데이터 프레임을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한다.
- 예컨대, 연도별로 그룹핑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.

```
> lfp %>%
   select(region, year, total) %>%
+ group by (year) %>%
+ head()
# A tibble: 6 x 3
# Groups: year [1]
 region year total
 <fct> <int> <dbl>
1 서울특별시 2000 4918
2 부산광역시 2000 1758
3 대구광역시 2000 1148
4 인천광역시 2000 1164
5 광주광역시
         2000 592
6 대전광역시 2000
              608
```

summarise

• summarise() 함수는 요약통계량을 구하는 함수이다. 연도별로 지역수 N, 지역평균 mean, 지역합 sum이 계산할 수 있다.

```
> lfp %>%
   select(region, year, total) %>%
   group by (year) %>%
   summarise(N = n(), mean = mean(total), sum =
sum(total)) %>%
   head(n = 5)
# A tibble: 5 x 4
  year N mean
                     sum
 <int> <int> <dbl> <dbl>
       16 1384. 22152
1 2000
       16 1407 22512
2 2001
  2002 16 1436. 22981
  2003 16 1440. 23042
5
  2004 16 1472. 23546
```

mutate

- 자료를 처리하다 보면 기존 변수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변수를 생성할 필요가 있다.
- mutate() 함수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다.

mutate 2

- 예컨대, 전체 경제참가자 중 여성 비율을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
 는 변수를 생성하고 싶다고 해보자.
 - 먼저 새로운 변수 계산에 필요한 변수들을 select() 함수를 통해서 솔라 낸다.
 - 그리고 mutate()함수를 통해서 경제활동참가자 중 여성의 비율을 계산 하고
 - 이를 Ifp.ratio.female 이라고 저장한다.
 - 이렇게 새로 생성된 변수인 Ifp.ratio.female을 연도별로 그룹핑하여 관측지, 평균, 표준편차를 계산한다.
 - 이렇게 계산된 결과를 t.2 에 저장하고 프린트 한 것이 아래의 결과이다.

```
> t.2 <- lfp %>%
+ select(region, year, total, female) %>%
+ mutate(lfp.ratio.female = female/total*100)
%>%
+ group_by(year) %>%
+ summarise(N = n(),
+ ratio.female =
mean(lfp.ratio.female),
+ sd =
sd(lfp.ratio.female)) %>%
+ ungroup()
```

```
> head(t.2)
# A tibble: 6 x 4
  year N ratio.female sd
 1 2000
       16
              41.6 2.78
                41.9
 2001
     16
                    2.75
3
  2002
     16
              42.2 2.71
  2003
     16
              41.4 2.69
4
5
 2004
     16
              41.7 2.46
 2005
        16
                41.9 2.55
```

GGPLOT2

Summar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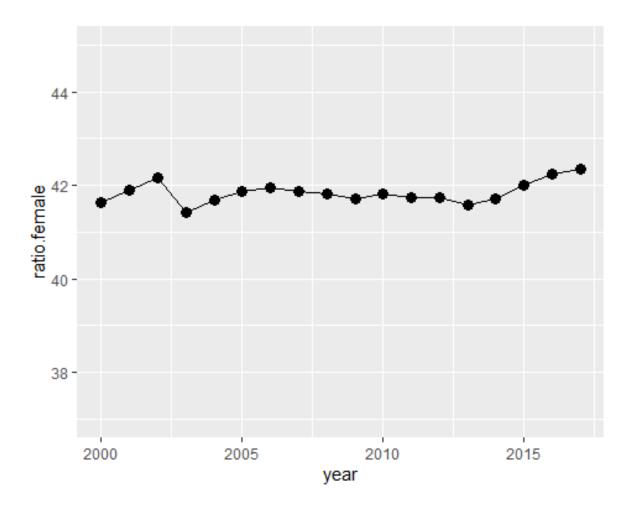
- 이렇게 dplyr 패키지를 이용하여 산출된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간단한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다.
-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R에 기본으로 장착된 그래프 함수들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
- 요즘에는 대다수가 ggplot2 패키지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.
- 처음부터 ggplot2 패키지에 포함된 함수들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배우는 것이 효율적이다.

Summary 2

단계

- ggplot2를 library() 함수를 이용하여 장착한다.
- dplyr의 자료 관리 함수들을 이용해서 바-그래프 그리기에 필요한 자료를 위의 예처럼 생성하였다.
- 그렇게 주어진 자료를 ggplot() 함수로 패스하였다.
-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x축은 연도, y축은 여성 비율이 되도록 aesthethics를 정해주었다.
- 그리고, geom_line() 함수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선-그래프를 그리고
- 표준오차 밴드를 geom ribbon()을 이용하여 그렸다.

```
> library(ggplot2)
> lfp %>%
    select(region, year, total, female) %>%
    mutate(lfp.ratio.female = female/total*100)
응>응
+ group by(year) %>%
    summarise(N = n(), ratio.female =
mean(lfp.ratio.female), sd =
sd(lfp.ratio.female)) %>%
    ggplot(mapping = aes(x = year, y =
ratio.female)) +
    geom point(size = 3) +
+ geom line() +
+ xlim(min = 2000, max = 2017) +
+ ylim(min = 37, max = 45)
```



-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R로 자료를 불러들여와야 한다.
- R에서 불러 들일 수 있는 자료는 크게 보면 다음과 같이 3가지 정도 로 구분할 있다.
 - 1. txt, csv, html 과 같은 텍스트 파일들
 - 2. STATA, SAS, SPSS 같은 통계패키지 파일들
 - 3. 데이터 베이스 등과 같은 소스에서 읽어 들이기

- 경제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작업은 자료를 읽는 것이다.
- 제일 간단한 형태는 txt 파일 혹은 csv 파일이다.
- txt 파일은 read.csv() 함수를 이용해서 읽을 수 있다.
 - 자료 읽기 전에 간단한 작업을 해줄 필요가 있다.
 - setwd() 함수를 이용해서 자료가 있는 작업 폴더로 이동하는 것이다.
 - 작업 폴더로 이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료를 읽을 때마다 경로를 지정 해주어야 한다.

- 한편, readr 패키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.
 - 특히, 속도면에서 readr 패키지가 빠르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로딩할 때 자주 사용된다.

```
> if (!require(readr)) install.packages('readr')
> library(readr)
```

• 그러면 read.csv 대신에 read_csv 를 사용할 수 있다.

```
> df.csv2 <- read_csv("swimming_pools.csv")
> class(df.csv2)
[1] "spec_tbl_df" "tbl_df" "tbl"
"data.frame"
```

엑셀자료 읽기

- 다음으로는 엑셀 형태의 자료를 읽어 보자.
- 엑셀 형태의 자료를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xlsx 패키지가 필요하다.
 - 만약 xlsx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install.packages("xlsx")를 통해서 해당 패키지를 설치하자.

```
> if (!require(readxl))
install.packages('readxl')
> library(readxl)
```

엑셀자료 읽기 2

- read.xlsx() 함수를 이용하여 urbanpop.xlsx 파일을 불러들이자.
 - 해당 파일은 8개 변수에 209개의 관측치가 있는 자료이다.

```
> df.xlsx <- read_excel("urbanpop.xlsx", sheet =
1)</pre>
```

• 이렇게 불러들인 자료 df.xlsx의 class 는 데이터 프레임이다.

```
> class(df.xlsx)
[1] "tbl df" "tbl" "data.frame"
```

file.choose()

- 한편 file.choose()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.
- file.choose() 함수를 포함시키는 경우 원도우 탐색창을 이용해서 읽어 들일 자료를 선택할 수도 있다.

> df.xlsx.2 <- read_excel(file.choose())</pre>

통계패키지 자료 읽기

- 통계패키지에서 생성된 자료를 R로 읽어 들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패키지가 필요하다.
- STATA의 경우에는 foreign 패키지가, SAS와 SPSS의 경우에는 Hmisc 패키지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.
- 예를 들어 STATA 파일인 확장자가 dta인 파일을 읽어들이자.
 - 먼저 foreign 패키지를 장착하자.
 - 최근 버젼의 STATA 파일을 읽어 들이기 위해서는 haven 패키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.

```
> if (!require(foreign))
install.packages('foreign')
> if (!require(haven)) install.packages('haven')
>
> library(foreign)
> library(haven)
> df.stata <- haven::read_dta("auto.dta")</pre>
```

• haven 패키지 내의 read_sas, read_sav 등의 함수를 이용하면 SAS나 sav 파일도 읽어 들일 수가 있다.